

## 尹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 대로 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서면답변서 제출  
정비사업·부동산세금·임대차3법 등 단계적 추진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공공성감안 우선실천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에 서면답변서를 제출, 윤석열 정부에서 실천할 부동산정책 청사진을 처음 발표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윤 당선인이 언급해온 공약사항이 그대로 녹아있긴 하지만 당장 추진하기 보단 시장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다음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부동산세금 정상화 ▲임대차3법 개선방안 ▲민간임대사업 재확성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부동산정책 및 그림을 제시했다.

서면답변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앞서 단기사장 불안이 촉발되지 않도록 시장상황 및 주택수급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불필요한 단기사장 불안이 생

기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종합 감안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도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세제는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원칙(형평성·공정성·효율성)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방안 및 시행시기 등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중부세·재산세 통합에 대해서도 추 후보자는 "국세사태와 재산과세 원칙(수익자 부담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 전문가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대차3법도 당장 법 개정 등 제도손질에 나서기보다 보완책을 우선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3법은 수급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으로서 필연적으로 시장외곽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니라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찾은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진영TBX'를 찾아 공장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인수위

만 이미 시장에서 상당기간 적응기간을 거친 임대차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시장 수급안정을 정책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각적 보완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pijy@newdailybiz.co.kr

### 대출금리 정말 7% 넘기나

한국은행 기준금지 1.50% 올려  
주담대 등 상반기 5~6% 예상

연 1.72%로 2월(연 1.70%) 대비 0.02%p 증가했다. 코픽스 금리 인상 분에 따라 국내 은행의 주요 대출 상품의 금리는 도미노 인상을 앞두고 있다.

올해 대출금리 7%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로 올리자 대출금리의 주요 지표가 되는 국고채 금리 상승, 금융채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덩달아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2.00~2.50%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은 연 3.42~5.34%다.

지난 연말과 비교했을 때 석달여 만에 상단이 0.27%p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지표인 코픽스(COPIX) 0.17%p 상승한 영향이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미 연 7% 돌파를 앞두고 있다. 4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0~6.38%에 달한다. 특히 3월 기준 코픽스 금리는

시장에서는 지난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분에 3월 코픽스 금리에 반영되지 않아 내달 금리 인상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모두 연 5~6%에 달할 것이라 관측이 뒤따르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 시각도 존재한다.

은행권이 최근 대출 수요 감소에 맞서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우대금리를 부활하는 등 금리를 낮추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되었다는 관측도 있다.

공통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전개될 통화정책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일정해소된 차원에서 시중금리는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벗어나 진정될 전망"이라 밝혔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 호남 찾아간 윤석열...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20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서 기업 유치·규제 완화 약속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 벌고 그곳 근로자들도 행복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지역을 찾아가 기업 유치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전주와 광주, 영암 등 전북·전남 지역 3개 도시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전북 지역의 기업 유치 및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줄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결국 기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 벌

고 그곳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해진다"며 "우리 (정부)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000조 가까운 자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자리를 잡고, 투자은행,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주 일대에 와서 하나의 투자은행 생태계가 구축돼 전북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금융산업 규제를 많이 풀면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

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중국의 외국 기업 유치와 규제 완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다 과실총금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곳"이라면서도 "그런데 국가 소유지만 50년, 60년씩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땅을 제공하니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규제 (완화)는 말할 것도 없고 (해의 기업들이) 와서 마음껏 돈 벌게 하고 땅도 제공해 왔다"라며 "재만금 개발도 아직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고 입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다. 여기에 국내의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을 못 시킨다면 그건 정말 우리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첨단3단지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현황을 찾아서도 "작은 정부와 민간 기업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상황에 맞는 전략 산업을 결정해서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광주는 일찌감치 AI 대표 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이고 이제는 정부의 지원만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래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핵심은 데이터와 AI 기술"이라며 "저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데이터 패권국이 돼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다. 이곳 AI 센터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손해경 기자 jujuq25@newdaily.co.kr

## 2022 칸 라이언즈



One moment can change everything.

접수기간: 2022년 1월 20일 ~ 4월 14일  
접수방법: www.canneslions.com 홈페이지 접수  
접수비용: 출품 부문별 상이  
어워드 발표: 2022년 6월 20일~24일  
※출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칸라이언즈 출품안내문 참조

## 출품 접수 시작합니다